

齒協 30年史

第1次 資料 蒐集草稿

資料 篇 (1)

齒協歷史編纂委員會 提供

- ◇……1946年 5月 1日 發行 <朝鮮齒界>誌에 收錄된 資料에서 8·15解放 當……◇
- ◇……時와 그後의 齒科界 또는 社會相을 窺보기로 하고 齒科界諸位의 批判……◇
- ◇……과 이를 補完할 수 있는 寄稿를 바란다. ……………◇

8·15後의 齒科醫師會動向

昨年 8月 15日 이날은 우리 三千萬同胞가 歷史的解放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 날이다. 過去 40年間 日本帝國主義의 壓迫과 蔑視는 再論할 餘地조차 없을만치 甚하였거니와 保健厚生部門인 齒科界에도 所謂 大東亞戰爭이 일어나자 強壓의 政策은 益甚하였다.

即 우리 白衣同胞의 同業者로 組織된 漢城齒科醫師會를 強制的命令下에 解散시키고 韓日合併式으로 日人齒科醫師會에 編入을 強要하여 朝鮮人을 拘束하고 壓迫하고 蔑視함으로써 齒科醫師會란 그들의 獨舞臺로 醜技를 演出하고 있었다.

勿論 表面上으로는 內鮮一體니 무엇이니 하여 名目上一部韓人을 任員으로 參加케 하였으나 會의 運營은 日人의 便宜와 利益을 爲하는 것이 原則이고 韓人의 事情과 意見主張은 돌보지 않았으며 醫療用金配給에 있어서도 想像할 수 없을 만치 差別의이었다.

눈이 없고 입이 없고 귀가없는 우리는 아니었던만 오직 弱少民族의 悲哀와 쓰라림을 참아가면서 앞날이 오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痛憤과 反感 忍耐로서 지내왔던 것이다.

그러던中 1945年 8月 15日 하루아침이슬로 사라진 日本帝國主義는 永遠히 이땅에서 물러가고 그네들은 우리 三千里江山에서 쫓겨나가게 된 運命에 到達하고야

말았다.

이제는 우리의 三千里江山 우리의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 齒科界를 建設하고 앞으로 우리 無窮花三千里江山의 保健厚生事業을 爲하여 두주먹을 부여잡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우리 齒科醫師로서 한사람 빠짐없이 느꼈던 것이다.

齒科醫師會結成準備

1945年 9月 5日 在 漢城市齒科醫師 몇분의 發起로 午後 3時 市內壽松公立國民學校 一教室에서 在京齒科醫師들을 召集하게 되었다. 마침 큰비로 出席成績이 念慮되었으나 定刻前에 雨中에도 不拘하고 數十名의 齒科醫師가 參席하여 우리끼리만이 처음 모이게 된 그 기쁨이 形容할 수 없을 만치 컸었다. 우리들의 모임을 監視하고 拘束하던 것을 생각하면 感慨無量이다.

場內는 聖스럽고 緊張한 空氣가 充滿하여 參席한 齒科醫師의 얼굴은 希望에 빛나고 있었다. 定刻이 되자 發起人側의 簡單한 人事가 있었고 이어서 앞으로 結成될 朝鮮齒科醫師會 準備委員會를 組織하게 되었다. 全國을 網羅한 朝鮮齒科醫師會와 漢城齒科醫師會를 誕生시킬 意義깊고 重要한 役割을 가진 母體를 構成하게 되었다.

準備委員選舉는 銓衡制로 하게 되어 議長文策玉이 高

啓黨, 曹基兩名外 2인과 淺見無識한 이 사람을 銓衡委員으로 指名 選出하여 別室에서 慎重히 銓衡한 結果 다음 10名을 準備委員에 選出하였다.

朴明鎮, 安鍾書, 趙明鎬, 李有慶, 鄭保羅, 文箕玉, 安炳植, 金溶瑨, 李東奐, 李迥柱
選出된 委員이 또다시 別室에서 準備委員長에 文箕玉을 選擧하였다. 朝鮮齒科界의 元老格인 文箕玉의 委員長 就任은 마음 든든한 適任일 뿐 아니라 훌륭한 會를 誕生시킬 自信滿滿한 產婆役이었다. 準備委員長의 紹介가 있자 雷雷와 같은 拍手와 歡呼는 場內를 振動하였다.

誕生할 會의 名稱은 討議結果 朝鮮齒科醫師會와 同漢城支部會라고 可決, 可及的 速히 創立總會를 開催하기로 約束하고 閉會했다.

朝鮮齒科醫師會

그동안 準備委員長文箕玉 以下 各委員들은 部署를 決定하며 多方面으로 交涉하여 會則의 草案作成등을 하고 12月 9日 朝鮮齒科醫師會 創立總會와 그 산하인 漢城市 齒科醫師會의 創立總會를 開催한다는 뉴스가 라디오 放送과 在京各新聞紙上을 通해서 數日間 報道되었다. 全國齒科醫師는 勿論 一般醫療關係者 또는 一般社會各方面에서 苦待하던 뉴스였다.

西紀 1945年 12月 9日 이날은 우리 齒科界의 歷史의 날이다. 場所는 全國唯一無二한 우리 母校 京城齒科專門學校 大講堂이다.

定刻이 되자 安炳植이 開會宣言, 愛國歌合唱後 文箕玉이 經過報告를 兼한 開會辭를 하고 議長에 文箕玉이 推戴되었다.

會則作成의 受苦를 한 安炳植이 草案를 朗讀하는 데로 眞摯한 討議를 거듭하여 無修正으로 通過시켰다.

討議事項으로 들어가기 前에 任員選擧가 있었다. 任員選擧는 銓衡制를 採擇하여 朴明鎮, 趙明鎬, 文箕玉, 李有慶, 鄭保羅, 洪思根, 金喆庸, 李昌鎔, 林榮俊, 李良淑, 方晏子등을 銓衡委員에 選任, 別室에서 銓衡한 結果 委員에 文箕玉, 安鍾書, 李有慶, 鄭保羅, 趙明鎬, 安炳植, 方晏子, 金文祚, 鄭道成, 林榮俊, 朴扶榮, 朴東奐 등과 評議員에 朴明鎮, 趙昊衍, 朴鎔德, 鄭用國, 元濟莘, 李良淑, 洪思根, 崔義鍾, 曹基沆, 李迥柱등을 各各 選出하였다.

討議事項은 (가) 齒科醫術研究件 (나) 齒科醫師檢定 試驗에 관한件 (다) 齒科材料器械에 관한件 (라) 保健厚生當局에 齒科部門을 置하고 責任者로 齒科醫師를 置할것 (마) 齒科醫師法制定에 관한件 (미) 有給事務員을 會에 置할것 (사) 非齒科醫師取締에 관한件 (아)

齒科會館設置에 관한件 (자) 其他事項등 여러가지를 討議한 結果 可決한 것도 있고 委員會에 一任한 것도 있으며 其他件은 金配給 問題를 討議한 後 6時에 閉會, 記念攝影을 하고 6時 30分부터 雅叙園에서 懇親會가 있었다. 이날 材料商組合에서 點心待接을 하였다.

漢城支部會

漢城齒科醫師會 創立總會는 時間關係로 不得已 次週로 延期하여 12月 16日 午後 2時부터 京城齒專大講堂에서 開催하였다.

總會順序는 다음과 같다.

1. 開會宣言(安炳植)
1. 愛國歌奉唱
1. 開會辭(文箕玉)
1. 設立準備委員會經過報告(文箕玉)
1. 會則草案討議
1. 委員選擧
1. 其他事項
1. 萬歲三唱
1. 閉會辭

建國途上 公私間 분주한 會員들이건만 40餘名이 出席하여 새 出發의 意氣를 昂揚한 바 있었다. 會則은 一部 修正을 하고 通過, 委員選擧는 銓衡制를 可決하여 會員의 口頭呼名으로 文箕玉, 金文祚, 林榮俊, 朴明鎮, 洪思根등 5名을 銓衡委員에 選出, 別室에서 慎重히 銓衡하여 다음과 같이 任員을 選擧하였다.

委員長金溶瑨 副委員長金然權, 委員 朴正湜, 金載天, 李聖民, 崔義鍾, 李東奐, 金鍾玉, 李迥柱, 洪思根, 曹基沆, 徐丙瑞, 評議員朴瑞用, 林榮俊, 金文祚, 安炳植 金貞姬, 評議員金貞姬는 任員中の 紅一點이다.

其他事項으로 金配給에 對하여는 希望數量記錄을 提出하고 配給量은 均一制를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日帝時代의 差別의 配給을 憤慨한 會員一同의 心理를 如實히 露呈한 것으로 생각한다.

材料件에 對하여 林榮俊의 調查報告가 있었고 日本人 齒科醫院 賣買件에 對하여는 積極的 調查를 委員에게 一任하기로 滿場一致 可決하였다.

끝으로 大韓獨立萬歲, 漢城支部萬歲를 부르고 文箕玉의 閉會辭가 있은다음 歷史的 創立總會의 幕을 닫고 希望에 넘치는 朝鮮齒科界에 新發足을 하게 되었다.

<徐丙瑞 記錄>



京畿道齒科醫師會

京畿道齒科醫師會 創立總會는 3月 10日(1946年) 下午

2시부터 齒專會議室에서 同會創立準備委員 및 漢城, 開城, 水原各支部代議員 20餘名, 來賓으로 朝鮮齒科醫療商工組合委員長車文弼, 同總務委員金文基, 朝鮮齒界社 崔曉峰, 李惠顯, 黃永基等 參席하여

- | | |
|-----------|---------------|
| 1. 開會宣言 | 1. 國旗敬禮 |
| 1. 愛國歌奉唱 | 1. 開會辭(兼經過報告) |
| 1. 來賓祝辭 | 1. 議長選定 |
| 1. 會則草案討議 | 1. 任員選舉 |
| 1. 其他事項 | |
1. 閉會의 順序로 盛大히 開催, 記念撮影을 하고 同 6時 30分 閉會後 雅叙園에서 懇親宴을 배풀었다. 選出된 同會任員은 다음과 같다.

委員長 文箕玉, 副委員長 安炳植, 同(水原) 李昌鎔, 委員 朴明鎮, 鄭保羅, 趙明鎬, 李有慶, 李聖民, 金然權 徐丙瑞, 開城 李熙昌, 仁川 林榮均, 評議員 安鍾書, 金溶瑤, 趙吳衍, 朴鎔德, 鄭用國.

總會概況 = 京畿道齒科醫師會의 結成은 그 構成人員이 他道에 比하여 壓倒의 多數일 뿐 아니라 熱烈한 指導理念을 가진 先驅者들의 集團임에 重大意義가 있고 따라서 齒科醫政上 劃期的 進軍의 巨步임을 意味한다. 開會를 기다리는 歷史的 <産室>의 空氣는 극히 嚴肅하였다.

定刻 2時가 되자 安炳植 開會를 宣言 國旗에 敬禮하고 愛國歌奉唱등 朝鮮사람된 感激이 議場에 넘쳐흐른다. 開會辭(安鍾書) 앞서 朝鮮齒科醫師會가 結成되었고 이처럼 늦게 京畿道齒科醫師會 創立總會를 開催하게 된 點을 疑訝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으나 그것은 처음에는 道齒科醫師會를 結成하지 말고 各地方齒科醫師會를 朝鮮齒科醫師會의 支部로 하라는 軍政當局의 指令에 依한 것인데 其後 事務上支障 있음을 느끼고 軍政當局의 再指令이 있어서 오늘 京畿道齒科醫師會 創立總會를 開催하게 되었다.

經過報告(安炳植) 2月末日頃 京畿道 齒科醫師會를 結成하라는 軍政廳指示가 있어서 發起人安鍾書, 金溶瑤, 鄭用國, 趙吳衍, 金然權, 朴明鎮, 趙明鎬, 文箕玉, 安炳植, 朴鎔德등 10名이 3月 2日 趙明鎬宅에서 準備委員會를 開催하여 常務委員으로 安鍾書, 趙明鎬, 安炳植등 3名을 選出하고 李熙昌(開城) 林榮均(仁川) 李昌鎔(水原)등도 發起人으로 追加하여 萬端準備를 急速히 거듭한 結果 오늘 京畿道 齒科醫師會 創立總會를 開催하게 된 것이다.

來賓祝辭(齒專校長 朴明鎮) 軍政廳에서 來賓으로 오실분이 事故로 못왔으니 朴先生이 校長資格으로 祝辭있기를 바란다. 安炳植要請—나는 會員이며 發起人의 한 사람으로서 祝辭의 말을 드리는 것이 矛盾되나 우리가 將次 나갈길을 말하고자 한다. 組織上의 順序로 朝鮮齒

科醫師會와 同漢城支部가 結成되었으나 그 中間團體인 道를 中心으로 하는 齒科醫師會가 必要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通信其他事情으로 이 會合이 遲滯되었던 것이다. 齒科醫師會가 이처럼 順調롭게 잘 組織되었으니 앞으로 마음과 힘을 합쳐서 齒科界當面課業을 遂行하는데 全努力을 기우려야 하겠다. 前提하고 齒科醫師會의 志向할바를 縷述.

議長選定 文箕玉을 滿場一致로 議長에 選定 微賤한 나를 議長에 選出해주시 感謝하다. 微力한 나로서 議長의 重責을 遂行하기 어려우나 여러분의 指導를 받아서 誠意껏 議事進行에 努力하겠다—就任人事後 議長席에 着席.

會則草案討議 安炳植이 會則各章各條項을 朗讀한 後 討議에 들어가 第一章總則, 第二章會員, 第三章任員과 部署, 第四章代議員, 第五章朝鮮齒科醫師會代議員, 第六章事業, 第七章會議等에 多少의 質疑應答이 있어 一部修正하고 急速度로 原案可決. 第八章 會費<第41條 會費는 各支部會에 對하여 每年 12月末日 現在의 會員數에 依하여 各支部每人當 正會員 百 20圓, 特別會員 30圓式 賦課키로함>에 對하여 討議戰이 活潑히 展開되었다.

朴明鎮 = 會費를 6分하여 가지고 6分之 3은 支部에, 6分之 2는 道齒科醫師會에, 6分之 1은 朝鮮齒科醫師會에 各各 分配하는 것이 理想的이라고 생각한다. 末端部門인 支部는 經費가 많이 들것이고 朝鮮齒科醫師會는 監督機關이니가 經費가 적어도 運營上支障없을듯 하다.

李有慶 = 朝鮮齒科醫師會는 企劃과 構成이 큰단치 末端部門인 支部보다 經費가 더 많이 들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萬若 分配比率를 定한다면 6分之 3은 朝鮮齒科醫師會에, 6分之 2는 道齒科醫師會에, 6分之 1은 支部에 分配하는 것이 至當치 않음가.

徐丙瑞 = 現在 漢城支部는 經費가 不足하여 困難이다. 李先生의 分配比率를 反對한다.

鄭保羅 = 朝鮮齒科醫師會의 使命은 크다. 朝鮮의 齒科水準을 國內의으로 또는 世界的으로 向上 宣揚하기 爲하여 權威있는 機關誌를 發刊할 計劃도 가지고 있다. 이事業을 遂行함에는 莫大한 經費가 必要하다.

朴扶榮 = 나는 財務委員인데 日前에 會誌를 發刊코져 2百페이지 2千部의 冊價를 問議한 中 1部에 40圓이 된다. 會誌하나 發刊하려면 8萬圓을 要한다. 其外事業도 하자면 相當한 資金을 要한다. 會費의 分配는 朝鮮齒科醫師會에 厚함을 要求한다.

徐丙瑞外數名이 反對하여 場內가 暫時 부산하였다.

議長 = 會費 百 20圓을 그대로 可決하느냐 增額하느냐를 定하자. 分配比率를 云謂할 必要는 없다.

李有慶=會費는 반드시 3分配 할 것인즉 그比率을 討議치 않을 수 없다.

安鍾書=經費는 아무래도 不足할 것이니 原案대로 可決하고 不足額은 臨時總會나 定期總會에 附議하여 다시 決定하자. 將來에는 齒科醫師會가 法定으로 될 것이고 그 때에는 相當한 金額을 賦課하게 될 것이 豫想된다.

議長=安鍾書動議에 異議없는가.

異議없이 原案(正會員 百 20圓, 特別會員 30圓) 可決하고 記念寫眞撮影을 爲하여 20分間休會後 續開.

任員選舉 銓衡制를 採擇, 銓衡委員 5名을 議長이 指名呼出케 動議 再請하여 李昌鎔, 李熙昌, 金溶瑞, 鄭保羅, 徐丙瑞 등 5名이 別室에서 委員 12名, 評議員 5名을 選出發表하고 選出된 委員이 또다시 別室에서 委員長, 副委員長을 無記名式投票로 選舉 發表하였다.

委員長 文箕玉, 副委員長 安炳植, 同 李昌鎔 등 就任人事에 全員拍手.

其他事項

鄭保羅=金配給에 對하여 通譯을 한 關係로 一言한다 漢城支部는 均一制로 決定하였는데 이것은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 백야미 司令部의 指令으로 62키로의 金을 配給하게 되었는데 其中 우선 齒專, 大學, 鐵道病院 其他公共團體病院에 配給을 하고 그 나머지를 開業醫에게 配給하는 것이다. 나는 金配合에 對하여 等級制를 主張한다. 例컨대 等級制로 하여 ABC로 한다면 서울은 文化都市이니가 C級이 均一制보다 많게 된다. 均一制로 한다면 齒專이나 各道立醫院이나 똑같이 配給을 받게 되고 開業醫로 말하여도 서울과 山間僻地를 混同하는 것은 不當하다.

議長=萬若 均一制로 하여 金을 他方面에 放出하는 者가 있어서 法網에 걸린다면 齒科醫의 威信에도 關한 일이지요 美國人의 蔑視가 甚할 것인즉 等級別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金鍾玉=配給받은 金을 闇市場에 放出하는 것은 等級制로 한다고 絶無할리 없다. 均一制나 等級制나 配給받은 齒科醫의 良心如何에 따라서 取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다.

安鍾書=地方에서는 等級制에 同意하고 있다.

金鍾玉=그것은 支部의 總意나, 代議員의 個人意思나 李熙昌(開城)=開業年數等을 參酌하여 從前처럼 等級別로 하고 싶다는 것은 個人意思다. 會員들의 意思는 確定되지 않았다.

李昌鎔(水原)=均一制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等級制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아는데 支部會員의 總意를 聽取하여 回答하려면 20日은 걸릴 것이다.

安鍾書=京畿道齒科醫師會로서의 決議權이 있을 것이

다. 이 場所에서 均一이나, 等級이나 決議하자.

金鍾玉=漢城支部代議員으로서는 等級制에 贊成할 수 없다. 이미 均一制가 決定된 以上 均一制를 主張한다.

李有慶=나도 等級制가 좋다고는 생각한다. 그런데 決議權은 代議員 1名이 1票를 行使하는가.

議長=그렇지 않다. 1支部에 1票다. 代議員數대로 決議權을 준다면 開城, 仁川, 水原은 意思表示를 하여도 漢城支部에 左右될 것이 아닌가.

李有慶=漢城支部는 會員이 많으니깐 代議員도 많은 것이다. 漢城支部의 代議員이 10名인데 決議權 1票라면 會則 第23條에 依하여 代議員을 選出한 本意에 背馳된다고 생각한다. 會則 第23條을 修正할 必要가 있다.

安鍾書=可決한 會則을 다시 修正할 수는 없다.

議長=支部의 總意에 依하여 均一制 或은 等級制를 定하되 京畿道의 意見만으로 南朝鮮全部를 決定하는 것은 越權이다. 京畿道를 爲始하여 各道의 總意를 朝鮮齒科醫師會에 提示함으로써 最後的決定을 할 것이다.

朴扶榮=等級制라면 日帝時代처럼 等差가 甚할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나 事實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崔羲鍾=等級制의 原則이 있는가.

朴扶榮, 崔羲鍾問의 問答이 있었으나 聽取不能.

鄭保羅=오늘의 國際情勢는 明日을 豫測할 수 없다.

軍政當局은 金配給의 準備가 다된 모양이니 京畿道만이라도 臨時的便宜上 措置로 等級制를 決定하여 速히 配給을 받도록 努力하는 것이 좋겠다.

金鍾玉=漢城支部의 總意를 無視하고 等級制에 贊成할 수 없다. 均一制로 하면 1人當 200그램은 된다. 過去에 最低 45그램 받던 사람이 200그램을 받는다면 當局이 參考의으로 調査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齒科醫自身이 良心의 報告를 하면 좋을 것이 아닌가.

曹基沆=나도 漢城支部代議員의 한사람인데 等級制를 贊成한다. 그 理由를 말하자면 齒科醫는 누구나다 똑같은 資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客觀的 立場에서 治療室에 한발을 들여놓고 보면 반드시 똑같지 않은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等級制가 된다면 나는 C級을 받을 사람이다. 設備가 좋고 患者도 많은 사람은 應當 A級이 될 것이고 나같은 사람은 B級이나 C級을 받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한다.

朴明鎭外數名이 均一制, 等級制 또는 再審議를 各其 主張하여 1時間以上을 消費하면서도 金配給의 解決點을 發見치 못하고 議場이 騷亂에 갈뿐더러 유리窓에는 暮色이 보인다.

安炳植=날도 저물어가니 이 問題는 懇親宴에서 再討議하기로 하고 散會하는 것이 좋겠다.

는 動議가 있자 全員 할 수 없다는 뜻이 再請, 議長이 閉會를 宣言, 때는 6時 30分. <崔曉峰 記錄>